여러나라의 기업가 기질 비교

세계 여러 나라 “ 앙뜨르쁘루누르(entrepreneur ·불어) ; 起業家-새로운 사업을 스스로 기업화(企業化)하는 실업가)들의 기질(氣質)을 평가하여 비교한 프랑스의 자료에서 각각 최고와 최저 기질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고가 밸런스(balance)형으로서 30%, 최저는 온정(溫情)형이 0%, 영국은 미국과 같은 유형으로서 최고가 밸런스형 21%, 최저는 온정형이 2%, 독일은 최고가 합리(合理)형 43%, 최저는 온정형이 0%, 일본은 최고가 밸런스형 15%, 최저는 숙고(熟考)형이 8%, 한국은 최고가 공격형 57%, 최저는 숙고형이 2%라고 한다.

이 자료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런데로 비교해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구미선진국의 기업가들이 모두 대체로 비온정적인 공통점을 보이며, 그러면서도 미국·영국은 밸런스형 기업가가 많고, 독일기업가들은 합리형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최고가 미국이나 영국같이 밸런스형의 기업가가 가장 많다고는 하나 15%에 불과하며, 온정형과 속단(速斷)형이 각각 14%로, 최고로 많다는 밸런스형과 거의 같은 구성비로서 일본 기업가들의 뚜렷한 기술, 또는 일반적인 기질이 분명치 않고, 밸런스형, 온정형, 속단형의 기업가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거의 60%가 속단적 또는 저돌적(猪突的)인 공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선진국들의 기업가 기질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루 균형적인 사고나 판단과 업무추진을 중요시하거나, 도리나 논리에 합당한 합리적인 사고나 업무추진을 중요시함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공격형 기질은 1950년의 한국동란으로 60%의 산업이 초토화되었지

만 불과 40 50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섬유제품은 매년 100억불 이상의 수출흑자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가공무역을 바탕으로 한 수출산업을 발전시켜온 우리경제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국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칫하면 밸런스 감각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업무추진 방식의 결여로 국제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혐오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가는 창업이래 수 십년 만에 굴지의 대회사나 재벌로까지 급속도로 성장하여 한때는 영화를 누리며 많은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었다고 하겠으나, 당대(當代)에 도산 또는 분할매각하기에 이르러, 많은 관련기업 및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안겨주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들 현실은 우리나라의 기업가 중에 공격형 인물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도 우리국가, 우리민족에 대한 신인도 추락뿐 아니라 혐오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도 추구하여야 하겠지만 신의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면서 예의 바르고, 품위를 지키는 기업가,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균형이 있고, 합리적이면서도 정의롭고 결단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며, 그럴수록 참된 기업가는 높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